교육 토론 구성 요소 (10주차 강의 필기)

4+2 숙명토론방식 = 입론 확인질문 반론 최종발언 + 자유토론 수기시간

1. 입론
2. 주장, 개념 정의

정형화 돼있지는 않지만 교육적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칼 포퍼가 제안한 입론은 처음에 한 번만 하자. 모든 논의를 쓸어서 뼈대와 근거가 되는 것을 일거에 듣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합리성을 따져가는 방식으로 논의하면 더 교육적일 것이다.>> 입론을 맨 처음에 모두 풀어헤쳐 정리한다. 분명한 입장과 주장, 논점, 사용된 중요한 핵심 개념, 용어 등을 모두 정의하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한정하여 가야함 그래야 그 용어와 개념 범위 안에서 효과적인 토론 가능.

1. 근거제시, 사례제시, 연결고리 제시

사례 – 근거가 참임을 입증

연결고리 – 근거와 사례, 논제와 근거가 관련 있음을 입증

논점 혹은 근거가 3개인 이유 - 핵심 주장과 가장 바탕이 되는 근거를 매치하는 것이 논증, 이를 정당화시키는 과정이 토론. 즉 핵심적인 이유나 근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뼈대를 세움. 이 뼈대가 하나일 경우와 두 개로 지탱되는 경우, 세 가지로 지탱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꼭 3의 법칙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입장을 가장 충분하고 탄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근거나 이유가 복수로 충분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1. 예상 반론 제기(선택)

단순하고 병렬적인 구성은 논리적으로 강렬하게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루할 수도 있음.>> 예상 반론을 끌어와서 해결 가능.

1. 주장 강화

예상 반론을 제기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입증하는 근거가 더 논리적이고 이러한 사례가 있으며 그 둘이 이렇게 더 부합적이다. 더 효과적이고 세련된 느낌, 주장을 강화. 근거와 사례 간의 연결고리가 중요하다.

뉴스나 탐사보도 등은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입론작성양식을 따른다.

(교재나 강의자료에 있음)

조밀하고 체계적이고 한 번에 이루어져야 함. 부족하면 지속적인 반론과 공격을 가짐.

준비시간을 충분히 가져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 함. 숙명토론방식은 반론 중심의 토론

1. 반론

상대 측의 논증 구조, 즉 주장이나 근거, 사례, 연결 고리 등에 대해 공격하는 것

1. 각 구성 요소인 주장, 근거, 연결고리, 사례가 참인지, ‘주장과 근거’, ‘근거와 연결고리

, ‘주장과 연결고리’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함

1. 상대 측이 주장하는 바 때문에 생길 문제점과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여 발견된 오류를 집중적으로 제시함
2. 상대측 주장의 근거, 연결고리에 대한 부정확성, 오류를 초점화, 상대측 주장에 대한 부작용과 대안 제시

현재의 정책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방어하는 것(입론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수비적인 스타일.

입론은 조금 더 토론하고자 하는 것을 끌고 와서 논증의 처음과 끝을 완결시킴, 공격적 스타일, 치밀한 설계에 의해서 완성해 나감

반론을 그것을 모두 다 반론해야 할 의무는 없음, 특정 사례나 관점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반론의 효과가 충분히 드러남, 수비적 스타일, 해체하고 세세한 항목들에 대한 개별적인 반박

반론의 단계별 점검 내용

1. 사실성

근거, 사례, 연결 고리가 사실인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팩트체크

1. 관련성

주장과 근거, 근거와 사례, 주장과 사례가 관련이 있는가, 연결고리가 타당한가

(논증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

사실이지만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음

1. 충분성

제시한 근거나 사례가 주장, 연결고리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사실성, 관련성을 체크한 다음 충분하지 않다면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

1. 부작용 찾기

상대측이 제시한 주장을 인정할 때 생기는 불이익, 부작용, 문제점을 제시하며 그 주장을 부정해야함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기대에 못 미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의도와 결과 사이의 괴리. 수반되는 불이익과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1. 새 방안 찾기

상대측이 제시한 주장보다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여 그 주장을 무너뜨리기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부작용이 덜한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함으로써 상대측의 주장과 의견이 설득력이 부족함을 이야기함

각각의 단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단계가 매우

중요함

반론 유의사항

1. 자기 측 반론도 신뢰성과 타당성을 가져야 함
2. 자기 측에 유리한 쟁점을 찾아내야 함
3. 반론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함
4. 앞의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주장을 제시하지 말아야 함

경청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

1. 상대측이 주장한 논증은 모두 반론해야 함

입론의 세 가지 근거를 조목조목 반론하는 것이 좋음, 하나만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전략 혹은 집중적인 반론은 청중으로 하여금 충분하거나 온전하지 않은 반론이라는 생각을 들게 함. 특히 가장 약한 고리와 타겟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음

1. 논증 구성 요소 전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함
2. 확인질문
3. 대상 – 입론 및 반론
4. 교차조사, 상호질문, 심문 – 논점이나 논거의 허점 살피기

그런데 말입니다, 개념이 이상하지 않은가, 사례가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새로운 주장, 공격, 수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예비 단계

매우 짧고 분석적인, 예리한 예비 단계

1. 사실 확인 – 소극적 질문(언질)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군요 하는, 다음단계에서 공격을 하겠다는 시그널

1. 입장 강화 – 적극적 질문(흐름)

확인질문을 연속해서 짧게 끊어서 몇 차례 함으로써 토론의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적극적인 역할

논리적 허점의 가능성을 조금씩 열어젖힘으로써 토론의 분위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음

단, 고압적인 확인질문은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단순한 사실 확인의 나열은 짜임새 없는 질문을 반증한다.

유의사항

1. 정확히,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묻는다
2. 명시하지 않은, 추론 가능한 근거를 확인한다
3. 중요한 논점, 논거의 언질을 확인한다
4. 상대측 논증의 모순점, 약한 연결고리를 분명하게 밝힌다
5. 일문일답, 짧은 답변 유도, 주장 금물
6. 성실답변 필수, 적절한 근거 필수, 역질문 금물
7. 최종발언

토론의 전반의 내용과 흐름을 각각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발언

토론의 핵심 쟁점과 각각의 입장에서 주장한 근거를 재차 강조하며 청중과 교감

논제에 대한 자기 팀(상대 팀 포함)의 입장과 논점을 간략하게 정리

자기 팀의 논점에 대한 상대 측의 반박을 간략하게 정리(왜 설득력이 부족한가)하고, 이에 대한 자기 팀의 전체적 입장(어떻게 효과적으로 논증했나)을 정리

청중과 교감하고 청중에게 호소하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적절한 경구(aphorism), 명언, 비유 등을 통해 강렬한 인상과 여운 등을 남길 수 있게 한다